가을 물들인 상월결사 화엄사 평화방생순례

10월 2일 화엄사서 입재, 천은사 1차 회향

구례 화엄사=노덕현 기자

2000여 대중 참석, 원력 모아
시암재까지 2차 행선도 진행
어린이 청소년 불자 대거 참여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 가을이 물들어가는 10월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0월 2일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에서 제6차 상월결사 생명평화순례를 봉행했다.

이날 평화방생순례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前호계원장 무상 스님, 화엄사 회주 종열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선암사 주지 경우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 기획실장 성화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포교부장 선업 스님 등 포교원 부실장 스님, 중앙종회 부의장 만당 스님, 선광 스님 등 종회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와이즈캠 총장을 비롯해 종립학교 교수들과 조계사, 봉은사, 수국사, 원적정사, 안국선원, 대덕사, 연흥사, 백담사, 영불사 등에서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김대현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김순례 구례군수 등 외빈들이 함께 했다.

화엄재 기간 마련된 이번 평화방생순례는 삼보사찰 1주년 기념식을 겸해 2000여명에 달하는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평화방생순례 입재식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종회의장 정문 스님 대독을 통해 "상월결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마음의 자유, 곧 마음의 방생이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생이며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바탕이자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옳고 그름의 경계 속에서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고, 끊임없는 자비의 실천으로 사회에 회향해야 진정한 평화의 세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오늘 지리산 순례길을 걸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두에게 정토가 열리기를 축원한다"고 발원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 정신을 상징하는 죽비를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에게 전달했으며, 화엄사 측은 상월결사 인도성지순례단에 지원금을 전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오늘 회주 스님에게 받은 죽비는 우리 마음의 평화, 자비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경책"이라며 "화엄사서 진행되는 평화방생순례는 하루지만, 오늘의 마음을 모아 100일 후 있을 인도 8대 성지순례 또한 원만 회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천은사 고갯길을 오르고 있다.

김순례 구례군수는 "지난해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보며 많은 이들이 코로나 극복의 힘과 용기, 희망을 얻었다. 오늘 평화방생순례를 통해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마음이 모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화엄사에서 출발한 순례대중들은 화엄사 사하촌을 지나 천은사까지 약 7km를 행선했다. 지리산 자락의 초가을 풍경이 순례대중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불자들 뿐만 아니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비롯해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도 천은사까지 함께 걸었다. 강승규 수석은 "국민 화합과 국난 극복, 세계 평화를 위한 불자들의 염원이 담긴 평화방생순례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저희들도 항상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응원하겠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뜻이 세상에 널리 퍼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평화방생순례에는 화엄사 어린이법회와 정광중·고등학교 등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초등학생 4학년인 진수현 양과 함께 참여한 최경엽 씨는 "평화방생순례 속에 깊은 뜻이 있는지 알게 되고 힘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며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미국·독일·싱가폴 등에서 온 동국대 외국인 교환학생 10여명도 참석했다. 미국에서 온 리니첼라 알레산드로 씨는 "세계 평화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함께 걸으며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모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독일에서 온 리아 바흐 씨도 "사찰이라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서 감동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화엄사에서 천은사까지의 평화방생순례에 이어 인도성지순례에 참여하는 순례단은 예행연습으로 지리산 시암재까지 순례를 이어갔다. 사부대중은 11월 11일 3년 전 천막결사를 시념하는 봉은사서 상월선원까지의 순례를 기약하며 산문을 나섰다.

서울시, 마을사업 중단…'뒷정리용 위탁' 논란

조계사·서울마을센터, 10월 5일 항의 기자회견

"불교계·센터구성원 기만"
조계사 경영권도 무시해
서울시 사과·재검토 촉구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울마을센터)를 위탁운영해 온 조계사와 일체협의 없이 사업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수탁기간 중에도 서울마을센터의 사업비를 통제하고 세부사업을 간섭하는 등 조계사의 운영권한을 배제해 왔다는 점에서 "이미 센터에 대한 사업종료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조계사에 이를 위탁해 사실상 '뒷정리'를 떠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다.

조계사와 서울마을센터는 10월 5일 서울시 본청사 정문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중단 통보'는 불교계와 서울마을센터 직원 및 활동가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서울시의 공식사과와 서울마을센터 사업 종료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조계사 사회국장 정수 스님과 손우정 서울마을센터장과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백해영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연대발언,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서울시 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월 23일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조계사에 서울마을센터의 일방 종료를 구두 통보해 왔다. 조계사는 일방적인 종료통보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공동체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 또 현재 서울마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9월 30일 공문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앞서 조계사는 지난해 11월 운영 난항중이던 서마종을 수탁한 후, 센터 임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여건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상생과 호혜의 서울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왔다. 때문에 "서울시의 갑작스런 사업종료 통보는 불교계 뿐 아니라 법인과 직원, 공동체 활동가들을 모욕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계사 운영기간 중 자행된 서울시의 운영권 침해 문제도 공론화됐다. 서울시는 조계사가 서울마을센터를 수탁한 직후, 장기간 특정감사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월별 사업비 통제, 세부 사업에 대한 실질적 간섭 및 통제 등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조계사와 서울마을센터는 서울시에 대해 △일 년간 조계사의 경영권을 철저히 무시하며 불교계를 우롱한데 대한 사과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종료 방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진우 스님 "불교 변화 위한 관심" 강조

本紙 구태서 대표 등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本紙 구태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여러 포교종책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태서 대표는 "37대 집행부가 제시한 종책에 깊이 공감하며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불교언론의 역할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本紙 구태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10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사진〉

이날 구태서 대표는 "취임법회에 참석해 스님의 취임사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현대불교신문은 신행과 포교에 강점을 지닌 불교언론으로, 향후 종단이 실현해 나갈 포교종책에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감사한 일이다. 종단 발전과 한국불교 새로운 중흥의 길을 열어가는 여정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불교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앞으로 종단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불교가 살아야 민족의 정체성이 살아나고 정체성이 공감 속에서 확립된다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분열과 불신을 넘어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화답했다.



경주 남산의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원력도 재차 강조했다. 스님은 "종교를 떠나 당시 민중의 원력과 간절함이 깃든 부처님을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불교계 원력을 모아내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10월말 경 현장확인 및 참배를 위해 경주 남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기획실장 성화 스님과 홍보국장 지안 스님 등이 배석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564차 수요시위 주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10월 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진행된 제156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윤석열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사노위는 피해자 할머니와 희생자를 위한 추모기도회를 봉행하고 시민들과 역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한일 관계 회복과 경제·안보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를 질타하며 "피해자 할머니 문제는 국가 무능으로 인해 희생된 국민 인권의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몽 스님은 "과거 일본 전범국의 범죄행위 문제를 상기하고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굴욕적인 외교 실수를 인정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온몸으로
의심하라!

7일 안에
체험할 수 있다!

간화선 현대화의 선구자이자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
수불 스님의 삶과 수행을 통해 배우는 간화선의 맛!

출간 즉시 베스트 셀러

"심오한 정신세계를
흥미진진한 소설로 풀어내는
최고의 이야기꾼"

글 짓는 수행자 정찬주 작가의 내공으로 빚어낸 역작
수불 스님의 간화선 대중화 대원력을 소설로 만나다!

"수불은 단호하게 결심했다. 일상생활이 바쁜 신도들에게 일주일 안으로 화두 체험을 시키지 못할 실력이라면 포교당을 접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도를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포교당 운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수불은 옛 조사들의 공안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활구를 제시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_본문 중에서

정찬주 장편소설
시간이 없다
선(禪) 대중화의 선지식, 수불 스님 이야기
정찬주 지음 | 416쪽 | 18,000원